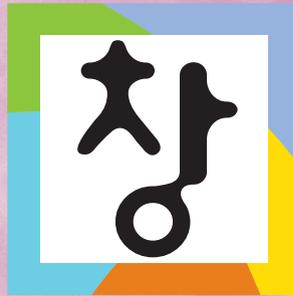


재외동포의



2014 | 03

특집 | 2013년도 재외동포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재외동포 기여도 높다고 본다”

글로벌코리아 | 소치 올림픽 동메달, 의병장 후손 고려인 테니스 텐

카자흐스탄의 영웅' 으로 부상

한민족공감 | 남북 이산가족 감격의 상봉, 기약 없는 이별

“하늘에서 다시 만나자”



OVERSEAS KOREANS FOUNDATION
재외동포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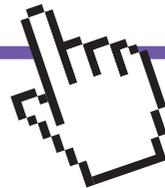
재외동포의 모든것,

KOREAN NET 으로 통합됩니다.



재외동포 전문포털 코리아넷

www.korean.net



재외동포 관련
다양한 정보제공



한국 역사
한국 문화 콘텐츠



주요 재외동포
인물·단체 정보



재외동포단체 홈페이지
제작·지원 서비스



온라인 초청
지원사업 신청



재외동포단체
SNS 서비스



비즈니스 교류
및 정보 제공



한국어 한국문화
학습 콘텐츠

WWW.KOREAN.NET

WWW.KOREAN.NET

WWW.KOREAN.NET

WWW.KOREAN.NET

WWW.KOREAN.NET

백제 왕실의 사상을 담은 제사용구 백제금동대향로

불 전에 향을 피울 때 쓰는 향로인 백제금동대향로(百濟金銅大香爐, 국보 287호)는 6~7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부여 능산리 백제시대 절터에서 출토되었다. 높이가 61.8cm인 향로는 상부 장식과 뚜껑으로 된 상부, 몸통 및 받침이 연결된 하부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앞발을 치켜든 용 한 마리가 막 피어날 듯한 연꽃 봉오리를 물고 있는 듯한 형상인데 연꽃 봉오리의 중앙이 아래위로 분리되어 향로의 몸체와 뚜껑을 이루고 있다. 향로의 뚜껑은 중첩된 형태의 산악으로 묘사되어 있고, 그 위에는 날개를 활짝 편 채 정면을 응시하고 있는 한 마리의 봉황이 보주 위에서 서 있다. 봉황 바로 아래 즉 뚜껑의 제일 위쪽에는 비단 도포를 입은 5명의 악사가 악기마다의 독특한 자세를 취한 채 악기를 연주하는 모습이 실감나게 표현되어 있다. 뚜껑의 문양은 전면에 산봉우리 24개가 배치되어 숲이 가득한 산을 연출하였다. 산봉우리와 계곡 사이에는 각종 동물, 나무, 비위, 폭포 등이 보인다.

대접모양을 한 몸체에는 연꽃의 꽃잎을 3단으로 배치했다. 꽃잎은 동체의 굴곡과 비례를 이루도록 위쪽 단이 가장 넓고 아래로 갈수록 그 폭이 줄어드는 방식을 취하였다. 꽃잎에는 돌출새김으로 물고기, 새, 동물 등을 조각하였다. 받침은 용이 한 다리를 치켜들고 꼬리와 나머지 세 다리를 이용하여 용트림하는 자세로 돌려져 있다.

백제 왕실에서 조상에게 제사를 지낼 때 사용하던 이 향로는 불교와 도교에 관련된 문양으로 백제 왕실의 사상을 압축하여 표현하고 있다.



▲ 불교와 도교에 관련된 문양을 새긴 백제금동대향로
◀ 악사, 새, 산봉우리 등이 표현된 향로의 뚜껑 장식

2013년도 재외동포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재외동포 기여도 높다고 본다”



재외동포재단(이사장 조규형)이 (주)한국리서치와 명지대에 의뢰, 지난해 8월 27일부터 9월 27일까지 국내 성인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재외동포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절반 이상은 재외동포가 한국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재외동포가 가장 크게 기여한 분야는 ‘국내 기업이 해외 시장에 진출할 때’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외동포가 한국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인식은 56.3%에 달해 우리 국민의 과반수가 재외동포의 모국 발전 기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년 전인 2011년의 40.0%에 비해 상당히 개선된 수치로서 연령별로는 40대(61.2%)에서, 학력별로는 대학원 재학 이상(80.0%)에서, 직업별로는 경영·관리직(75.5%)에서 재외동포의 한국사회 기여를 적극 인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기여 내용별로 살펴보면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시’(69.3%)와 ‘독립운동 당시’(59.7%)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위상 변화’(58%), ‘대한민국 이미지 개선’(56.3%), ‘한국발전에 기여도’(56.3%) 등에 대해서도 재외동포의 기여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국민은 또 향후 국가발전과 남북통일 과정에서 미국·캐나다 지역의 동포가 다른 지역에 비해 더 많은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은 거주 지역별로 미국·캐나다(50.8%)와 중국(26.8%) 지역 동포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일본(7.0%), 호주·뉴질랜드(4.4%), 동남아(4.0%), 유럽(3.6%), 러시아·CIS(2.0%) 지역 순으로 중요도를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2년 전과 비교하면 미국·캐나다 지역 동포를 제외한 중국 등 나머지 지역 동포의 역할에 대한 우리 국민의 기대감이 크게 퇴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동북아의 긴장고조와 주변국(특히 중국)의 한반도정책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남북통일과 한민족네트워크 통합에서 기대되는 중국동포의 역할과는 모순되는 현상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된다.

재외동포에 대해서는 ‘한 국민으로서의 동질감’이나 ‘한민족으로서의 소속감’을 갖고 있다는 응답이 각각 67.2%와 65.6%여서 우리 국민은 재외동포에 비교적 친근감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외국 거주자를 재외동포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77.0%가 ‘그렇다’고 답해 지난 2009년 71.3%, 2011년 66.0%보다 긍정적인 응답률이 다소 높아졌다. ▲ 중국, 구소련, 일본 등 일제강점기 때 자의 또는 타의로 이주한 사람과 그 후손 ▲ 대한민국 국민이었다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이민자 ▲ 외국에서 태어나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재외동포 2·3세 ▲ 한국어와 한국을 잘 모르는 한인 입양인 등에 대해서는 각각 67.0%, 58.6%, 48.9%, 48.5%가 재외동포로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인차세대 지원 정책이 중요하다고 인식

‘누가 재외동포인가’의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전히 국적이지만 현지 정착을 이유로 우리 국적을 포기한 외국국적 소지자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의 절반 이상이 한국인의 범주 속에 포함시키고 있었다. 이는 그만큼 우리 국민이 생각하는 재외동포의 개념과 범위가 우리 국적 소지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사례이다.

진정한 한국 사람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는 ‘한국인이라는 자부심과 의식’(44.3%)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대한민국 국적’(24.8%), ‘한국 혈통’(21.8%), ‘평생의 대부분을 한국에서 사는 것’(5.8%), ‘한국어 사용’(3.5%) 등을 꼽았다.

재외동포재단이 실시하고 있는 사업 중 ‘세계한상대회’에 대해 34.8%가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것에 비해 ‘세계한상대회가 경제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은 63.6%로 ‘세계한상대회’가 경제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거주국 현지에서 동포사회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차세대(1.5세-2세 이하)를 발굴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목적으로 진행되는 ‘세계한인 차세대 지원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65.5%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차세대 지원 정책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재외국민 참정권과 관련해서는 ‘긍정적 효과가 매우 크고 잘한 일’이라거나 ‘효과는 크지 않지만 잘한 일’이라는 긍정적 답변이 53.3%, ‘잘 모르겠다’는 답변이 26.5%, ‘역효과가 있는 것 같다’나 ‘매우 잘못된 일로 시급히 철회되어야 한다’는 부정적이라는 답변이 20.3%였다. 재외국민의 한국정치 참여에 대한 우리 국민의 평가는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우편·인터넷을 이용한 재외동포 선거에 대해서는 ‘보안상의 문제가 있으므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이 52.6%로,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 35.0%보다 높았다.

재외동포재단은 지난 2007년부터 2년마다 내국민을 대상으로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은 ±3.46%이다.

재외동포재단은 이번 ‘2013년도 재외동포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서 수렴된 국민 의견을 코리아넷(www.korean.net)과 재외동포재단 자료실(<http://research.korean.net>)을 통해 공개했다. 또 관련 자료를 관계기관 등에 제공하여 재외동포 정책 수립과 재외동포재단 사업 추진에 적극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1. 재외동포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보고회 2. 재외동포재단이 주최한 2013 세계한상대회 3. 2013 세계한인 차세대대회 참가자들이 금박 공예 체험을 하고 있다.





안중근 의사 기념관에서 중국인 관람객이 전시물을 보고 있다.

개관 한 달 하얼빈역 안중근 의사 기념관, 중국인 큰 관심

중국 헤이룽장(黑龍江)성 하얼빈(哈爾濱)역에 1월 19일 문을 연 안중근 의사 기념관이 내외국인의 높은 관심 속에 지역 명소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개관 초기에는 한국 교민과 현지 진출 기업 관계자, 하얼빈을 찾은 관광객이 관람객의 주를 이뤘지만, 최근에는 언론 보도와 입소문을 통해 기념관 개관 소식을 접한 중국인의 발길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기념관 관리를 담당하는 하얼빈시 조선민족예술관의 집계에 따르면 안 의사 기념관의 1일 관람객 수는 적게는 300명에서 많은 날은 1천 명에 달한다. 2월 13일 기념관에서 만난 대학원생 가오위안(高遠·24) 씨는 “책을 통해 안 의사의 생애와 업적을 예전부터 알고 있었다”면서 “중국 젊은이도 역사 문제에 관심이 많은데 여전히 반성하지 않는 일본 집권 세력의 최근 행태를 보면서 동양의 진정한 평화를 갈망했던 안 의사의 숭고한 정신을 되새기게 된다”고 말했다.

안 의사 기념관에는 중국인과 한국인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북한인과 일본인도 방문하고 있다. 기념관의 한 관계자는 “북한인의 경우 외교관 등의 공식방문은 아니지만, 삼삼오오 무리를 지어 찾아와 진지하게 전시물을 둘러보고 간다”면서 “외국인의 경우 여권을 소지해야 기념관을 관람할 수 있는데 국적을 보면 일본인도 상당수를 차지한다”고 귀띔했다.

하얼빈시 조선민족예술관 강월화(康月華) 관장은 “중국인이 개인 돈으로 꽃을 사 와서 안 의사 동상 앞에 바치는 모습을 보고 가슴 뭉클했다”면서 “특히 30~40대 어머니가 아이의 손을 잡고 와서 안 의사의 업적을 설명해주고 역사교육을 하는 모습이 자주 눈에 띈다”고 말했다.



재일 민단 · 재일한국상공회의소 분규 종식, 단일화에 합의

수년간 분규를 겪던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 · 단장 오공태)과 일반사단법인 재일한국상공회의소(상공회의소 · 회장 박충홍)가 단일화에 최종 합의했다. 오 단장과 박 회장, 김진식 도쿄 총영사는 2월 3일 도쿄의 주일 한국대사관 청사에서 단일화에 관한 최종합의서에 서명했다고 2월 5일 민단 관계자가 밝혔다.

3자는 지난해 12월 24일 주일 대사관의 중재로 기본합의서를 채택한 뒤 지금까지 협의를 계속해 마침내 통합을 이뤄 낸 것이다. 최종합의서에 따르면 상공회의소는 민단의 반(反)민단 조직 지정, 임원에 대한 제명, 정권(停權) 조치가 해제 되는 대로 민단 산하단체로 복귀해 분규 이후 산하에 있던 단체와 통합 작업을 개시하기로 했다.

민단은 관계법령에 따라 통합된 상공회의소의 자주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상공회의소도 민단의 강령 및 규약을 준수하기로 했다. 상공회의소는 민단을 대상으로 한 민사 고발을 2월 19일까지 취하하기로 했으며, 민단도 같은 날까지 중앙위원회의를 열어 상공회의소의 반민단 조직 지정 · 제명 · 정권 조치를 즉시 해제하기로 했다.

양측은 평평한 대립을 이어가다가 지난해 말 사태를 봉합했다. 두 단체는 원활한 통합 작업을 위해 5~7명으로 구성하는 위원회를 설치하고, 4월 말까지 통합 총회를 개최해 명칭 사용 및 집행부 구성 절차를 완료하기로 했다.



분규를 겪던 재일민단과 재일한국상공회의소가 주일 한국대사관의 중재로 단일화에 합의했다. 사진은 최근 이병기 주일대사(맨앞 왼쪽)와 오공태 재일민단 단장(맨앞 오른쪽) 등이 도쿄 한인타운에서 청소 봉사에 나선 모습

중국 옌벤주 “우리말·글 지키자”, 기념일 지정 추진

중국 내 조선족 동포 최대 밀집지역인 지린성 옌벤(延邊)조선족자치주가 민족 언어 보호와 발전을 위한 기념일 지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2월 12일 연변일보에 따르면 옌벤주 조선어문사업위원회는 매년 9월 2일을 ‘조선어문자의 날’로 지정하는 방안을 최근 주(州) 공신당위원회에 제출했다. 주 당위 상무위원회는 옌벤에서 갈수록 비주류 언어로 밀려나는 조

학교에서 뛰노는 조선족 어린이들



선어에 대한 보호 · 발전의식을 높이는 차원에서 기념일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 방안을 채택했다.

우리의 한글날과 비슷한 취지의 ‘조선어문자의 날’은 옌벤주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의 비준을 거쳐 정식으로 반포될 예정이다.

조선어문사업위원회 김천근 부주임은 “조선어 기념일을 옌벤자치주 설립 기념일(9월 3일) 바로 전날에 배치하고 민족 언어 학습과 사용을 장려하는 다양한 활동을 벌여 특히 조선족 젊은이들에게 민족 언어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의식을 심어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한인 단체 '일본 전범기인 욱일기 퇴출' 영상 제작

미국의 한인 단체가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사용했던 전범기인 '욱일기' 퇴출을 위한 영상을 제작한다. 미국의 한인 단체인 일본 전범기 퇴출 시민위원회(회장 백영현)는 2월 20일 뉴저지주 팰리세이즈파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의 욱일기와 관련한 사진, 동영상, 기록 등을 담은 영상을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본 전범기 퇴출 시민위원회 기자회견

위원회는 영상에 들어갈 자료에 대한 저작권 등 법률 검토를 마친 뒤 오는 4월까지 영상 제작을 완료하고 이를 유튜브, 소셜미디어 등에 올리는 한편 국제단체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또 유엔 인권단체 등과 협력해 일본에서 나치기 사용을 금지하고 욱일기의 사용 규제를 요청하는 법률 소송도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백 회장은 "나치기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과 북미에서 소지 및 사용이 법으로 금지됐지만 욱일기는 아직도 일본인에 의해 전세계에서 사용되고 있다"면서 "영상을 통해 욱일기 퇴출 운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영상을 통한 욱일기 퇴출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도 있지만 영상 제작은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라 정의에 관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2014 춘절맞이 동포 노래자랑

설 연휴를 맞아 2월 2일 서울 구로동의 한 웨딩홀에서 '설(춘절)맞이 동포 노래자랑 한마당'이 열렸다. 중국동포 산악연맹 등이 주최한 행사에는 총 24명이 참가해 노래 솜씨를 뽐냈다.

일반인의 노래자랑에 앞서 중국 길림성에서 온 특별 초대 가수 장미옥 씨가 연분홍 드레스를 입고 '청장고원(티베트고원)'을 불렀다. 연길예술단 국가 1급 배우인 장 씨는 "청장고원"이 한국의 아리랑 같은 노래로 고원에 아득히 울리는 메아리를 노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설(춘절)맞이 동포 노래자랑 한마당

평소 노래 부르기를 좋아한다는 중국 동포 김화(38) 씨는 이날 노래자랑에 13번째 참가자로 나서 대중가요 '미운 사랑'을 열창해 가장 많은 박수를 받았다. 김 씨는 "이렇게 동포와 정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서서 구경하는 참석자들 때문에 지나다니기도 힘들 정도로 성황을 이뤘다.



미국수도에 세울 '한국문화교육센터' 에 후원 답지

미국의 수도 워싱턴DC에 세워질 '한국문화교육센터'의 건립 사업에 국내 각계각층의 인사도 힘을 보태고 나서 국내 외 동포가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한미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태미)은 2월 6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후원의 밤 행사를 열었다. 김진원 KBS 앵커의 사회로 열린 행사에는 안홍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한명숙 전 총리, 김성곤·양승조 민주당 의원,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 조규형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정도 대한불교 조계종 교육부장 등이 참석했다.

대한불교 조계종·경기무용협회·독도시랑모임·세계미래포럼·CEO 친목단체 청장회 등의 대표와 관계자, 윈테크코리아·JNC 테크·동인·푸른솔 등 중소기업 대표 100여 명도 뜻을 같이 하기 위해 행사장을 찾았다.

이 이사장은 "이날 저녁에서 십시일반으로 모은 성금이 5천여 만 원이었고, LED 생산기업 (주)케이에스비가 1억 원의 후원을 약속했다"며 "많은 분의 후원 덕분에 용기를 얻었다"고 밝게 웃었다.

한미문화예술재단은 지난해 센터 건립을 위해 워싱턴DC 인근 메릴랜드에 부지 3천여 평과 3개 동의 부속 건물을 55만 달러에 사들였다. 그러나 리모델링과 신축 건물 공사비로 52만 달러가 더 투입돼야 하는 상황에서 자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어 국내에 도움을 요청했다.



한미문화예술재단 이태미 이사장이 국회 귀빈식당에서 '한국문화교육센터' 건립 후원의 밤 행사를 열었다.

해외한인상가정보서비스 '글로벌한마당' 오픈

국토교통부는 해외 곳곳에서 운영되는 한인 상가에 대한 정보를 지도 기반으로 제공하는 '글로벌 한(韓)마당' (khanmadang.or.kr)을 최근 구축해 운영에 들어갔다. 해외여행을 하는 국민이나 재외동포가 어떤 지역에서 운영되는 한국인 숙박업소나 식당 등을 찾기 쉽도록 만든 것이다.

글로벌 한(韓)마당 홈페이지



우선 뉴욕과 런던, 도쿄 등 3개 지역의 정보가 시범적으로 서비스된다. 재외공관과 한인단체, 한인이 운영하는 숙박업소, 식당, 여행업체, 렌터카업체 등의 정보 1만5천여 건이 제공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해외여행자가 외국에서 한인 식당을 찾기가 쉬워지고 동포끼리 서로 경제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해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민**

정체성 지키며 차별에 맞서온 재일동포 이민사 아픈 역사 딛고 언제나 조국 사랑

한 일강제병합 이전에 일본으로 건너간 조선인은 그 수가 많지 않았다. 일본정부의 공식통계에 따르면 1882년에 4명, 1909년에는 790명의 조선인이 일본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부분은 유학생이고 소수가 외교관, 정치적 망명자이다.

재일한인의 본격적인 이주와 정착은 조선에 대한 일제의 식민지 통치라는 역사적 조건하에서 진행되었다. 한일강제병합 후 일제는 강압적인 토지조사사업을 벌여 많은 토지를 '국유'로 편입한 후 일본인 지주 및 토지회사에 불하했다. 이로 인해 많은 농민이 지금껏 경작하던 토지를 잃고 도시빈민층을 형성하게 되었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의 파급효과로 활황을 맞은 일본 기업은 국내의 노동력 부족과 임금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저임금의 조선인을 적극적으로 모집했다. 그들은 모집 브로커를 조선 지역에 파견하여 노동자 모집경쟁을 벌이기도 하였다. 그 결과 재일조선인의 수는 1915년의 3천917명에서 1920년에는 3만189명으로 5년 만에 8배가량 증가하였다.

일본은 1931년에 만주사변을 일으키고 1937년 중·일전쟁을 개시하면서 전선 확대에 따른 병력과 일본 본토의 전시산업을 지탱할 노동력 확보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1938년 4월에 국가총동원법을 발표하고 1939년 7월에 노동력 동원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1939년 9월에 '조선인 노동자 모집 및 도향 취급 요강'을 발표하여 강제연행이 시작되었다. 탄광, 광산으로의 조선노동자 강제연행이 시작되었고, 후에 철강, 토목산업 등 그 외의 모집분야에도 확대되었다.

1939년부터 1945년까지 강제연행된 인원은 72만4천787명에 이르렀다. 여기에 군인, 군속 36만5천263명과 8만여명에 이르는 일본군 위안부를 합하면 조선인 강제연행자 수는 100만 명을 훌쩍 넘는다.

한국전쟁 참전 등 위기 때마다 조국 응원

1945년 해방을 맞아 일본에 거주하는 조선인은 귀국을 서두르기 시작하였다. 일본에 거주하는 한인의 규모는 광복 당시 230만 명에 달했으나 1947년 12월 말 현재의 재외외국인 등록자 중 재일동포는 59만8천507명이었다. 1949년 5월 말 정부가 발표한 귀국자의 수만도 140여만 명에 달했을 정도로 귀환은 민족의 대이동이라 할 만했다.

귀국하지 않고 일본에 잔류한 사람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다. 당시 일본 정부는 귀국희망자 등록을 실시하고, 조선인 귀환자가 고국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금액을 1천 엔 이내로 제한하였다. 가난한 조선인에게는 별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경제적 기반을 마련한 사람은 고국에서 생





1. 2013년 재일학도의용군 6·25 참전 63주년을 맞아 인천시 남구 수봉공원 재일학도의용군 참전기념탑 앞에서 기념식이 열렸다. 2. 2014년 1월 9일 일본 도쿄도 (東京都) 뉴오타니 호텔에서 열린 재일본대한민국민단 신년회에서 오공태 민단 단장이 발언하고 있다. 3. 1980년대 고국을 찾은 재일동포 추석 성묘단이 입국하며 눈물짓고 있다.

활터전을 마련할 수 있는 보장도 없는 터에 어렵게 모은 재산을 포기하고 일본을 떠날 수 없었다.

그러나 재일동포의 마음은 늘 조국을 향해 있었다.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조국을 구하겠다며 모두 642명의 재일동포 학도의용군이 목숨을 걸고 참전했다. 3년에 걸친 6·25전쟁 기간에 그 중 52명은 전사했고 83명은 전투 도중 행방불명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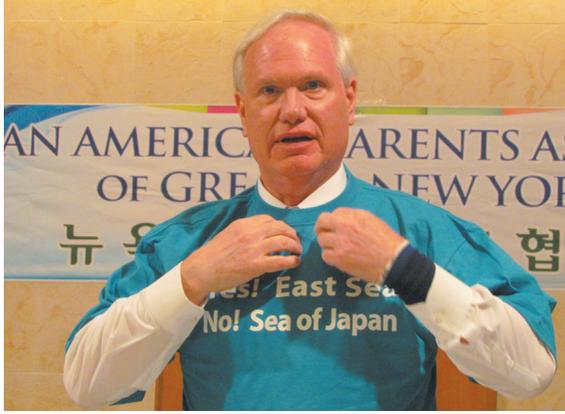
재일동포의 6·25 참전은 세계 역사상 최초의 해외국민 참전이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잃은 순국선열이 잠들어 있는 서울 동작동의 국립현충원 제16묘역에 가면 재일학도의용군의 위령비가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재일본대한민국민단(단장 오공태)은 최근 재일동포가 모국에 기여한 애국애족(愛國愛族) 사례를 모은 책자 '민단은 대한민국과 하나이다'를 발간했다. 이 책자에는 1997년 IMF 위기 때 조국을 위해 15억 달러를 송금하고 300억 엔 규모의 국채를 사들이는 등 조국의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늘 자기 일처럼 생각하며 힘을 보태온 재일동포의 모습이 담겼다.

이제 재일동포 사회의 역사는 제2세대를 넘어서 3세, 4세로 이어지고 있다. 재일한인을 구분해 보면 농민층 몰락에 따라 도향한 제1기(1910~1938), 강제연행에 의해 도향한 제2기(1939~1945년 8월), 일본의 패전 후 일본에 남겨진 제3기로 나눈다. 종전 이전에 도일한 한인을 구세대(old timer)라고 한다면 1989년 한국의 해외여행 자유화조치로 도일한 한인은 '뉴커머'(new comer)라고 불리는데 이들이 이주하기 시작한 1980년대 말부터 현재까지를 재일한인 형성사의 제4기로 볼 수 있다.

1980년대 말 이후 일본의 경제호황기에 일본으로 건너간 10여만 명의 '뉴커머'는 재일한인사회에 새로운 집단을 형성하였다. '뉴커머'의 주요 구성원인 기업 및 기관 파견 주재원과 그 가족의 체류기간은 대개 3~5년 정도다. '뉴커머'는 구세대에 비해 과거사로부터 비교적 자유롭고 행동 양태도 당당해 재일동포 사회 전체의 의식변화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본다.

외교부가 발간한 '2013년 재외동포 현황'에 따르면 2012년 12월 기준으로 재외동포 인구는 701만2천492명이며, 재일동포는 89만 명으로 조사됐다. ㉠



▲ 동해 병기 의무화 법안이 버지니아에 이어 뉴욕 주와 뉴저지 주에서도 추진되는 가운데 토니 아벨라(민주당) 뉴욕 주 상원의원이 '에스! 동해! 노! 일본해'라고 적힌 녹색 티셔츠를 입고 회견에 나섰다.
▶ 에드 로이스 미국 연방 하원 외교위원장이 2월 1일 미국 캘리포니아 주 글렌데일의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을 찾아 꽃다발을 들고 참배하고 있다.



미국서 '동해 표기' 법안 동시다발로 추진 일본군 위안부 문제도 동시 확산

미국 버지니아 주의 동해병기 법안이 마무리 절차를 밟고 있다. 버지니아 주 하원 교육위원회는 2월 26일 주내 공립학교 교과서에 '동해 (East Sea)와 '일본해 (Sea of Japan) 병기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상원이 통과시킨 법안(SB 2)을 표결에 부쳐 찬성 19표, 반대 3표로 가결 처리했다.

데이브 마스덴(민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지난 1월 상원 교육위원회 소위와 교육위 전체회의, 상원 전체회의를 차례로 통과했었다. 따라서 상·하원 교차 심의 및 표결을 통해 하원이 전체회의에서 상원 법안을 처리하고 테리 매콜리프 주지사가 서명하면 모든 절차가 끝나 법안이 7월부터 발효한다. 매콜리프 주지사는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서명하겠다고 확인한 바 있다.

미국 버지니아 주 의회에서 공립학교 교과서에 '동해'와 '일본해' 병기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통과된 데 이어 뉴욕 주와 뉴저지 주에서도 같은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뉴욕 주에서는 '동해 표기' 법안이 동시다발로 추진되고 있다. 토비 앤 스타비스키(민주당) 뉴욕 주 상원 의원이 교과서 동해 병기 법안을 주 상원에 발의했고 에드워드 브라운스타인(민주당) 뉴욕 주 하원 의원도 주 하원에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어 토니 아벨라(민주당) 뉴욕 주 상원의원도 2월 12일 뉴욕 플러싱에서 한인 동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어 "동해 단독표기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뉴저지 주에서는 고든 존슨(민주당) 하원 의원이 동해 병기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존슨 의원 사무실 측은 "공립학교 교과서에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하는 법안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교과서 게재도 추진

미국에서 '동해 표기' 법안이 추진되는 가운데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역시 함께 확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토니 아벨라의 의원은 "동해라는 명칭은 일본이 한국을 침략하기 전에 2천 년간 사용된 이름"이라고 강조하면서 이 법안에 '일본군 위안부' 관련 역사적 사실도 함께 교과서에 실는다는 조항도 포함시켰다.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전 일본 총리는 2월 27일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한 1993년 '고노(河野) 담화'를 검증하겠다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태도를 비판하면서 "고노 담화는 포괄적인 증거조사 이후 나온 것으로 당시 일본군이 작전상 필요해서 위안소를 설치한 건 틀림없다"고 그 정당성을 확인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 일대에 거주하는 아시아계 미국 시민은 글렌데일의 위안부 기림 소녀상 지키기에 팔을 걷어붙였다. 로스앤젤레스 지역 중국계와 일본계 미국인은 2월 25일 열린 로스앤젤레스 근교 도시 글렌데일 시의회에 참석해 '시민 자유 발언 시간'에 대거 발언권을 신청한 뒤 소녀상 철거 소송의 부당성과 소녀상의 역사적, 교육적 당위성을 역설하고 일본 정부의 전쟁 범죄 반성을 한결같이 촉구했다.

특히 중국계와 일본계 미국인은 글렌데일 소녀상 철거 소송을 낸 일부 일본계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일본 정부의 진정한 반



성을 촉구하는데 한목소리를 내 눈길을 끌었다.

‘자유 발언 시간’이 끝나자 이날 출석한 시의원 4명 가운데 사회를 본 데이브 위버 시장을 제외한 로라 프리드먼, 아라 나자리안, 자레 시나니언 시의원은 “소녀상은 우리 시의 소중한 자랑”이라며 “반드시 있던 자리에 그대로 있도록 지켜겠다”고 화답했다.



국가브랜드업(UP) 전시회

‘국가브랜드UP 전시회’ 8만 관람객 모으고 폐막 해외·지방 위해 ‘디지털 전시관’ 오픈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의 15년 역사와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연합뉴스의 글로벌 취재 현황을 한눈에 보여주는 ‘국가브랜드UP 전시회’가 2월 19일부터 25일까지 서울 용산동의 국립중앙박물관 전시관 1층 로비에 열렸다.

연합뉴스와 반크는 ‘우리가 대한민국 외교관’이라는 부제 아래 연 전시회에서 독도·동해 표기 등 한국 관련 오류를 바로 잡은 사례, 반크 회원의 다양한 활동 모습과 갖가지 사연, 60여 명의 해외 특파원망과 6개 외국어 서비스 등으로 대한민국 바로 알리기와 국격 높이기에 힘써온 연합뉴스의 활약상을 소개했다.

국립중앙박물관 측은 “평일에는 1만 명, 주말에는 2만 명씩 다녀갔다”며 “연합뉴스와 반크가 설치한 전시물이 어린이박물관 입구여서 봄방학을 맞은 어린이와 부모 등 8만 명 정도가 관

람했다”고 추산했다.

전시 기간에는 전국에서 온 청소년과 대학생 60명이 전시회를 안내하는 등 자원봉사자로 나서 활동하기도 했다.

청년 공공외교 대사 76명도 탄생했다. 이들은 전시회 개막과 함께 외국 인터넷 사이트에 잘못된 한국 정보를 수정하라고 요청하는 글을 보내기도 하고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 홍보물을 나눠준 뒤 본인이 개설한 블로그에 활동상을 올려 널리 알리는 미션을 수행했다.

이들은 폐막식에 앞서 열린 공공외교 대사 임명식에서 “앞으로 SNS 등을 통해 한국 바로 알리기에 나서겠다”고 다짐했다.

박기태 반크 단장은 “해외와 지방을 돌며 전시회를 열고 싶지만 여건상 어렵다”며 “이번에 전시된 모든 콘텐츠와 자원봉사자의 후기 등을 모아 ‘디지털 전시관’을 꾸밀 것”이라고 밝혔다. 

소치 올림픽 동메달, 의병장 후손 고려인 데니스 텐 '카자흐스탄의 영웅'으로 부상

항일 의병장의 후손인 한국계 피겨스케이팅 선수 데니스 텐(20)이 카자흐스탄 동계스포츠의 역사를 새로 쓰는 영웅이 됐다. 텐은 2월 14~15일 러시아 소치의 아이스버그 스케이팅 팰리스에서 열린 2014 소치 동계올림픽 피겨 남자 싱글에서 쇼트 프로그램·프리스케이팅 합계 255.10점으로 하비에르 페르난데스(스페인·253.92점)를 제치고 동메달을 차지했다.

이날 텐의 동메달은 소치올림픽에서 카자흐스탄이 따낸 첫 메달이다. 아울러 역대 올림픽에서 카자흐스탄이 피겨스케이팅에서 따낸 첫 메달이기도 하다. 카자흐스탄은 역대 동계올림픽에서 크로스컨트리와 스피드스케이팅, 바이애슬론 외의 종목에서는 메달을 따낸 적이 없다.

텐의 조국은 카자흐스탄이지만 그의 몸속에는 한국인의 피가 흐른다. 텐은 구한말 강원도 일대에서 의병장으로 활약했던 민공호(閔肯鏞) 선생의 고손자다. 1907년 8월 일제가 원주 진위대를 해산하려 하자 이에 저항해 300명의 병사를 이끌고 의병을 일으킨



민 선생은 충주지방 탈환 전투를 벌이는 등 홍천과 춘천, 횡성, 원주 일대에서 일본군과 격전을 벌여 전공을 세웠다.

민공호 선생의 외손녀인 김 알렉산드라가 텐의 할머니이다. 할머니로부터 고조부의 사진과 일화를 보고 들으며 자란 텐은 2010년 민 선생의 묘를 직접 방문하고 선생에 대한 논문도 쓴 바 있다.

어머니의 권유로 다섯 살 때부터 카자흐스탄의 야의 링크에서 피겨를 시작한 그는 추위를 피하려 바지를 세 겹이나 입어가며 기술을 익혔다. 텐이 처음으로 세계를 놀라게 한 사건은 2013년 세계선수권대회였다. 당시 쇼트프로그램에서 2위에 오른 텐은 프리스케이팅에서는 우승자 패트릭 쉐(캐나다)보다도 높은 점수로 1위를 차지했다. 당시 텐의 은메달은 카자흐스탄이



한국계 피겨스케이팅 선수 데니스 텐

피겨 메이저 국제대회에서 따낸 첫 메달이기도 했다.

항일의 정신을 체화한 '한국의 영웅' 고조할아버지의 피를 물려받은 후손으로서 '카자흐스탄의 영웅'이 된 텐은 "평창올림픽에도 나가는 것이 꿈"이라며 "4년은 먼 미래 같지만 사실 금방 지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은행 국장 승진한 한국 여성 소재향 세계은행 최고위 한국인

세계은행(WB) 양허성자금 국제협력부(CFP)의 신임 국장에 한국인 소재향(52·여) 현 WB 물·위생프로그램 과장이 선임됐다고 기획재정부가 2월 11일 전했다. 현재 세계은행에 진출한 한국인 중에서는 소 신임국장이 가장 높은 관리직이다.



미국 PBS 방송의 다큐멘터리 '김치연대기'로 주목받은 한국계 마르자 봉게리히텐 씨



봉게리히텐(37) 씨는 2월 14일 시카고에서 최근 근황을 전하며 이렇게 말했다.

봉게리히텐은 시카고 전문직 한인이 중심이 돼 미국 주류사회에 한국 문화를 뿌리 내리기 위한 노력을 쏟고 있는

세종문화회(사무총장 루시 박 UIC 의대교수)의 연례 기금마련행사 참석차 시카고를 방문했다.

그는 "김치연대기는 지금도 인도 등 9개 나라에서 재방영되고 있고 하와이항공 기내에서도 방송되고 있다"며 "PBS가 방송지역을 계속 확대하는 덕분에 시청자로부터 꾸준한 반응을 얻고 있다"고 전했다.

주한미군이던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나 3세 때 미국인 가정에 입양된 봉게리히텐은 "김치연대기 촬영은 한국인으로서의 나를 일깨워주고 자부심과 긍지를 갖게 해준 너무나 소중한 기회였다"면서 "한국의 문화와 전통에 대한 내 열정을 더 강화시켜주었다"고 털어놓았다.

프랑스 출신의 세계적인 스타 셰프 장 조지 봉게리히텐(56) 씨의 아내이기도 한 그는 "음식에는 혼이 담겨 있다. 한국음식은 내 영혼을 위한 양식이고 만병통치약"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변에 몸 아픈 사람이 있으면 데려다가 한국 음식을 해 먹인다"면서 "전통적인 한국 '집 밥'을 전 세계인에게 더 많이 알리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요리쇼 출범을 추진하고 '김치연대기' 여행코스 개발 구상도 하면서 매우 바쁘게 지내는 그는 지난달 말에는 워싱턴DC에 있는 아메리칸대학 푸드 코트에 한국식당 '김치 여신(Kimchi Goddess)'을 열었다. 그가 개발한 한국 음식 메뉴를 재료 선택에서부터 조리까지 책임지고 공급하는 이 식당은 매일 800명 이상의 학생이 찾아올 정도로 성황을 이루고 있다. 



세계은행의 소재향 씨 블로그

양허성자금 국제협력부는 부총재와 국장, 과장 순으로 직위가 구성되며 소 국장은 양허성 자금 및 국제협력자금을 통합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서울 출생인 소 신임 국장은 미국에서 고교를 졸업하고 스탠포드대에서 경제학 학사와 경영학석사(MBA) 학위를 마쳤다.

1992년 세계은행의 공채제도인 전문가 프로그램을 통해 세계은행에 입행, 사무총장 보좌관, 아시아지역 선임 인프라 전문가 등을 역임했다.

2012년에는 세계은행 직원협의회에서 수여하는 '모범 과장상'(Good Manager Award)을 수상하기도 했다.

기재부는 "최근 지명된 이창용 국제통화기금 아태국장과 함께 국제금융기구 고위직에 진출한 모범적인 사례"라며 "우리 국민의 고위직 진출을 위해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치여신’ 한국계 마르자봉게리히텐 “한국 밥은 만병통치약”

“복한·싸이·김치가 한국의 전부는 아니죠. 삼성·LG로 상징되는 한국의 현재를 있게 한 이면의 저력, 우리 고유의 문화와 깊은 역사를 알리는 노력을 확대해갔으면 좋겠어요.”

미국 PBS 방송의 13부작 다큐멘터리 '김치연대기'(Kimchi Chronicle·2011)를 통해 세계인에게 한국의 향토음식과 고유 음식문화를 소개하며 주목받은 한국계 혼혈 마르자



“우리도붉은악마..파이팅 코리아” 브라질 동포 월드컵 ‘따봉 응원단’ 구성

임용위 | 재 멕시코 회곡작가

▼ 현대자동차는 붉은악마 응원단과 2014 브라질 월드컵 공동 응원 협약식을 갖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 서울지방방무청의 올해 첫 징병검사브라질 한인회는 인접 국가인 아르헨티나와 파라과이 동포들도 함께하는 ‘따봉 응원단’을 꾸려 올 6월에 열리는 월드컵에서 붉은악마와 공동으로 응원을 펼치기로 했다.

“태극전사들의 사상 첫 원정 8강 우리가 함께한다.”

‘축구의 나라’ 브라질에 사는 한인 동포들도 태극전사들의 선전에 힘을 보태겠다며 짜임새 있는 응원을 준비하고 있다.

브라질에서는 지난 1월 한인회를 비롯한 동포 단체들과 브라질-한국 상공회의소(Kocham, 코참) 등이 참여한 범 한인 브라질 월드컵 지원위원회가 구성됐다. 브라질 대사관(대사 구분우)과 상파울루 총영사관(총영사 홍영중)은 측면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지원위원회는 1천200여 명의 동포들로 ‘따봉 응원단’을 꾸려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서포터스 클럽인 ‘붉은 악마’와 함께 공동 응원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이번 월드컵에는 붉은 악마 회원 200명 정도가 브라질을 찾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붉은 악마의 반우용 의장 일행이 지난 2월 초 브라질을 방문해 동포들과의 응원 연습 일정을 협의하고 한국 대표팀의 경기가 열리는 도시를 현장 답사했다.

응원에는 인접국 아르헨티나와 파라과이 동포들도 가세해 한인족의 단합을 꾀하는 뜻깊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6월17일 중부 쿠파이바 시에서 열리는 조별 리그 러시아와의 첫 경기에는 붉은 악마 200명과 브라질 동포 200여 명, 파라과이 동포 100여 명이 응원단을 구성한다.

6월22일 조별 리그 두 번째 경기 알제리 전에는 붉은 악마 200명과 브라질 동포 300여 명으로 이루어진 응원단에 아르헨티나 동

포 200여 명이 합류할 예정이다.

이어 6월26일 벨기에와의 조별 리그 마지막 경기에서는 붉은 악마 200명과 브라질 동포 1천200여 명이 어우러져 가장 큰 규모의 응원전을 펼칠 계획이다.

지원위원회는 또 경기장에 가지 못하는 동포들을 위해 상파울루 시내 한인타운인 봉헤치로 지역의 거리에 대형 스크린을 설치하기로 했다. 아르헨티나·파라과이 등에서 오는 동포들을 위해 홈스테이도 운영한다.

지원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인 브라질-한국 상공회의소의 최태훈(54) 회장은 “본선에 진출한 태극전사들의 선전을 기원하는 것뿐 아니라 동포 1.5세와 2세들이 단합된 한인족의 힘을 느끼는 계기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월드컵 공식 후원업체인 현대자동차는 별도의 응원 프로그램을 통해 ‘코리아 열풍’에 힘을 싣는다.

현대차는 상파울루 시 인근 휴양도시 캄포스 도 조르다웅에 단채 응원 장소인 ‘팬 파크’ (Fan Park)를 만들고 대형 스크린을 설치할 예정이다.

월드컵이 열리는 6월12일부터 7월13일까지 한 달간 리우데자네이루와 브라질리아, 벨로 오리존테, 포르투 알레그리, 마나우스, 쿠리치바, 쿠파이바 등 7개 도시에서 길거리 응원전인 ‘팬 페스트’ (Fan Fest)를 운영한다. **췌**

재외동포 병역의무자의 국적 및 병역 국적 · 병역법 미리 대비하세요



서울지방병무청의 올해 첫 징병검사

한 국 국적 보유자가 외국으로 이주하여 외국 시민권을 취득하거나, 외국에서 출생하여 복수국적을 보유하게 되면 신분이 변경되거나 국적 선택 의무가 발생하므로 국적법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한국 국적 보유자가 후천적으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다.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한국 국적이 상실된 재외동포는 관할 재외공관에 국적 상실 신고를 하여야 한다.

외국 국적 취득에 의한 국적상실자, 국적 선택 의무 불이행에 의한 국적상실자 등 과거에 한국 국민이었던 사람이 한국 국적을 다시 취득하려면 국적 회복 허가를 신청하면 된다.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이탈하였던 사람, 범죄경력자 등 한국 국민이 되기에는 부적격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은 국적 회복 허가를 받을 수 없다.

한국 국적과 외국 국적(시민권)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복수국적자라고 한다. 출생에 의해 한국 국적을 당연취득한 사람의 출생 장소가 미국 등과 같은 출생지주의 국가인 경우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과 미국 등 국적(시민권)을 함께 취득하게 된다.

복수국적자인 병역의무자는 37세까지 병역을 연기 받을 수 있다. 37세까지 병역이 연기된 사람이 한국 내에서 1년 중 통산 6개월 이상 체류하거나 취업 등 영리활동을 하게 되면 국외여행 허가가 취소되고 병역의무가 부과된다. 한국에 있는 교육기관에서 학업을 계속하는 경우 병역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병역의무가 있는 남자는 국적법과 병역법을 잘 알고 미리 대비해야 한다.

실제 사례로 본 재외동포의 병역의무

Q 1990년 7월생 남자로서 미국 시민권이 있고, 부모님이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을 때 미국에서 출생한 복수국적자인데 병역의무는 어떻게 되나?

A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 또는 병역복무를 마치고 2년 내에 한국 국적을 선택하면,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할 수 있고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

Q 한국에서 출생하여 한국인으로 살다가 부모님과 함께 외국으로 이주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했다. 현재 20세 남자인데 병역관계는 어떻게 되나?

A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한국 국민이 아니므로 현재 병역의무가 없다. 한국 국민이 후천적으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한국 국적이 상실된다. 이 경우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한다.

Q 1990년 7월생 남자인데 미국 시민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인 부모님이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을 때 미국에서 출생하여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외국인등록을 하고 한국에서 살고 싶은데 가능한가?

A 귀하는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과 미국 시민권을 함께 취득한 복수국적자이다. 한국 국적자이므로 외국인등록을 할 수 없으며, 한국에 거주하려면 주민등록을 해야 한다. 국적법은 '복수국적자에게 한국 법령을 적용할 때 한국 국민으로만 처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 국적을 이탈하고 외국 국적만 보유 하려는 남자는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이전에 국적이탈신고를 해야 하며, 이후에는 병역의무를 해소해야만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다.

Q 미국에서 출생한 이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부모님과 함께 계속 미국에서 거주했다. 한국말도 못하고 한국 문화에 적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한국에 있는 대학에 유학하고 난 후 다시 미국에 거주하고 싶은데 유학 기간 동안 병역문제는 어떻게 해결 할 수 있나?

A 부·모와 함께 외국에서 거주하는 복수국적자로서 37세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이 한국에서 1년 중 통산 6개월 이상 거주하면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되나, 한국에 있는 교육기관에서의 학업으로 인한 한국 거주는 병역의무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한국 교육기관에서 수학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학업기간 중 그 부·모 또는 배우자가 1년 중 통산 6개월 이상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는 병역의무가 부과된다. ㉸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인 2월 25일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1년 성과 공공기관 개혁, 통일대박 기대

2월 25일로 출범 1년이 된 박근혜 정부는 남북관계를 포함한 외교안보 분야에서 선전하며 50% 중반대의 지지율에 걸맞은 비교적 안정적 국정운영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북문제를 비롯한 외교안보 분야는 가장 잘한 분야로 꼽힌다. 북한의 장성택 처형 등으로 인한 불안정한 한반도정세 속에서 신뢰 프로세스의 일관된 추진과 최근 이산가족 상봉의 성사, 통일대박론의 제기 등 박 대통령의 원칙이 높은 평을 받았다. 집권 첫해 4강 외교에 대해 외교전문가는 한·미 동맹 공고화와 한·중, 한·러시아 관계 개선이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박 대통령은 취임 후 첫 방문국으로 미국을 택했다. 이후 양국 간 굵직굵직한 현안은 해결됐거나 해결되는 과정을 밟고 있다. 한·중 관계는 전문가마다 한목소리로 가장 높이 평가하는 대목이다.

올 초 중국 하얼빈역에 인종근 의사 기념관을 개관하는 등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해 한·중 양국이 보조를 맞추며 대응하는 모습은 한·중 관계 개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러시아와의 관계도 무난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취임 첫해인 지난해 9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첫 정상회담을 가진 데 이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한반도 4강 중 가장 먼저 한국을 공식 방문하면서 한 해에 정상회담을 두 차례나 가졌다.

일본과의 관계는 최악이다. 그러나 현 상황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브레이크 없는' 우경화 행보로 인한 것이라는 점에서 박근혜 정부의 대일 외교 기조는 적절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 이산가족 상봉행사에서 60여 년 만에 모인 가족이 가족 사진을 보고 있다.

◀ 남측 유근배 씨가 북측 오빠 류근철(81) 씨 볼에 입을 맞추고 있다.

남북 이산가족 감격의 상봉, 기약 없는 이별 “하늘에서 다시 만나자”

3년 4개월 만에 재개된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2월 20~22일 1차 상봉에 이어 23~25일 2차 상봉으로 마무리됐다. 60여 년 만에 재회한 남북 이산가족은 2박3일의 짧은 만남을 뒤로하고 다시 기약 없는 이별을 해야 했다.

2차 상봉에 참가한 북측 상봉 대상자 88명과 남측 가족 357명은 25일 오전 9시부터 1시간 동안 금강산호텔에서 '작별상봉'을 한 뒤 헤어졌다. 이산가족은 작별상봉에서 마지막 인사를 하며 오열했다. '고향의 봄', '가고파' 등 노래를 부르고 큰절을 하며 석별의 정을 나누기도 했다.

이산가족은 작별 상봉이 10분 후면 끝나는 안내 방송이 나오자 무정하게 흐르는 시간을 야속해하며 곳곳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상봉이 끝난 후 북측 가족이 먼저 버스에 올랐고 남측 가족은 밖에서 서서 이들을 배웅했다. 남측 가족은 너나 할 것 없이 차량에 달라붙어 차창 너머로 혈육의 손을 마지막으로 꼭 잡았다.

이산가족도, 안내원도, 남쪽도, 북쪽도, 모두 눈물을 흘렸다. 북한 적십자회 배지를 단 안내원은 “이럴 때 눈물 안 나면 조선 사람 아니지요”라며 눈시울을 붉혔다.

2010년 10월의 18차 이산가족 상봉 이후 처음 열린 이번 상봉은 남측 상봉 신청자가 북측 가족을 만난 1차 상봉과 북측 신청자가 남측 가족을 만난 2차 상봉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드디어 추억이 돼버린 ‘마피아 코리아노’

임용위 | 재 멕시코 회곡작가

멕시코 사람들과 만나 서로의 문화와 식생활풍토에 대해 얘기하다보면 금방 친구가 되는 기분을 느낀다. 내가 알고 지내온 대부분의 멕시코 인들은 동양의 작은 나라 한국을 동경하고 결코 작지 않은 민족의 독특한 개성에 경의를 표하는 편이다.

멕시코시티에서 기자 신분으로 이민생활을 시작했던 필자는 이 나라 언론이 말하는 한국인의 얼토당토않은 보도내용에 분통을 터뜨린 적도 많았다. 그 중에는 심심풀이처럼 신문과 TV에 ‘멕시코 속의 한국인은 법도 질서도 모르는 비문화인’이라는 점, 그리고 심지어 코리아노란 말 뒤에 마피아라는 관형어가 줄곧 따라붙었던 기사에 화가 치밀곤했다.

한인식당이 한인고객을 상대로 파는 개고기 음식을 다룬 프로그램은 멕시코 최대의 지상 방송국인 텔레비사(TVEMSA)에게 최고의 시청률을 안겨줬다. 권총이 등장한 한인 간의 난투극 사건은 피해자가 널브러져 있는 참혹하게 연출된 칼라사진과 함께 범죄기 시간을 다루는 타블로이드판 일간지의 표지에 전면으로 대서특필됐다.

한국인을 경멸하고 비하하는 단골 레퍼토리 기사는 밀수와 가짜 상품 판매가 압도적이었다. ‘한국 상인은 너나 할 것 없이 대량의 해적상품을 암암리에 수입해 들여와 질서를 잡아가는 멕시코 시장을 뒤 흔들고 있다. 한인 상인 전체가 잘 짜인 조직을 결성해 집단적으로 움직이고 있으니 마피아 조직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다.’

보도는 터무니없는 거짓말이었다. 기사의 ‘한국인’이라는 자리에 ‘유태인’이 들어가도 딱 걸맞은 말이었다. 현지 신문사보다도 텔레비사 방송이 주로 혈안이 되어 연거푸 비슷한 내용의 보도를 텔레비전 뉴스시간에 떠들어댔다. 당시 내가 알고 있는 알팍한 정보란게 텔레비사의 경영은 유태인들이 장악하고 있으며 멕시코 시장경



멕시코 한인동포들이 현지 노숙자들에게 10년 이상 무료로 급식을 제공하며 이웃 사랑을 실천해오고 있어 동포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제를 밀수와 가짜상품으로 밑바닥부터 활성화시킨 장본인도 바로 유태인들이란 것들이었다.

앞서 말한 5%의 상류 계급 속엔 다수의 유태인들이 포진하고 있다. 인기 힘든 현실이지만 그들은 멕시코 시장에서 온갖 탈 불법을 동원해 해적상품으로 큰돈을 벌어들였다. 그 돈은 신문사 방송국을 만들고 키우는데 한몫했고 매맛취 차츰차츰 늘어나는 한인 상인들이 그들을 닮아가려 하는 행동에 바짝 긴장하기 시작했을 지도 모를 일이다.

2000년 이전의 많은 한인이 황금기의 시장에서 여느 외국인 상인과 마찬가지로 밀수품으로 많은 매상을 올렸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후로 대부분 합법적인 경영방식으로 가게 운영을 바꿔나갔다. 극소수의 한인 상인이 예전 방식을 중단하지 않고 이어갔던 것이 곧바로 ‘마피아’의 빌미를 마련하는 과정으로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이다.

언제부터인지 텔레비사의 ‘한국인’을 물고 늘어지는 작태가 슬그머니 꼬리를 감추었다. 여전히 타 방송처럼 우호적이고 친절한 보도에는 인색한 편이지만 마구잡이 마녀사냥 짓을 멈춘 것만도 참다행스런 일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수년간 공판과 한인회는 한국과 한국인을 바로 알리는데 큰 공을 들였다. 멕시코가 곤경(인플루엔자 재난, 홍수 등)에 닥쳤을 때 맨 먼저 팔을 걷어 부쳤던 사람들이 재 멕시코 한인들이었고, 월드컵, 축구협회, 재향군인회 등 수많은 한인단체들이 숭한 봉사활동과 구호 의연금활동에 적극적이었던 걸 그들(언론 방송단체)도 끝까지 외면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지금부터가 이제 중요한 시점일 것이다. 우리 스스로 스스로를 망치는 짓은 과거에 충분히 했다. 현자인, 현지사회와 깊숙이 어울려 사이좋게 지내는 일이 바로 우리가 우리를 제대로 알리는 일일 것이다. 곧 그것만이 후배와 후손의 한인 이민자들에게 기름진 발판을 마련해주는 값진 선물이 되지 않을까. **췌**

OKF NEWS

재단 이사장 이스라엘 아프리카중동한인회총연합회총회참석

조규형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2월 15일부터 일주일간 이스라엘, 터키를 방문했다. 조 이사장은 18일 예루살렘에서 개최되는 아프리카중동한인회총연합회(이하 아중동총연) 정기총회에 참석해 축사 및 강연을 펼쳤다.

정기총회에 앞서 이스라엘 공공외교부 관계자와 면담을 하며 동포정책을 논의한 조 이사장은 “이스라엘은 해외 유대인이 보내온 2억 달러와 정부 예산 1억 5천만 달러를 더해 3억 5천만 달러의 동포예산을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한 뒤 “유대인 재외 동포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미국에서 비 유대인과의 결혼이 늘고 장기 모국 연수자가 줄고 있어 정체성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우리도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재외동포재단의 사업을 총회에 참석한 각국 한인회장에게 소개했다. 그는 “올해부터 해외 한인단체 지원은 사업중심으로 진행하도록 이끌고 있다”며 “장기 계획으로 한인 2세를 위한 정체성 교육과 한글교육 지원에 무게를 두고 재단사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한편, 총회에서는 임도재 회장이 연임에 성공하며 2016년 2월까지 아중동총연을 이끌게 됐다. 선거에 단독 후보로 나선 임 회장은 압도적인 찬성표를 얻어 앞으로 연합회를 이끌고 가는데 부담을 덜 하게 됐다.

임 회장은 당선 소감에서 “앞으로 2년 더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위상을 높이는 데 힘을 쏟겠다”며 “올해 세계 한인회장대회에 아중동총련이 공동의장을 맡아 어깨가 무겁지만, 한인사회가 한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대회를 잘 이끌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다음 달 거주국인 아프리카 가나에서 ‘세계한인회장대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한다.

임 회장은 당선 직후 제4대 집행부를 꾸렸다. 수석부회장은 이진영 전 이집트한인회장, 부회장에는 신동철 전 UAE한인회장·심현섭 쿠웨이트한인회장·임호성 사우디 젠티한인회장·정해권 전 남아공 더반한인회장·조홍선 나이지리아한인회장·김근욱 짐바브



재단이사장 이스라엘 : 조규형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2월 17일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하이아트 단 호텔에서 열린 아프리카중동한인회총연합회 총회에 참석해 한인회장을 격려했다.

웨 한인회장을 위촉했다.

조 이사장은 이후에 동 지역 재외동포단체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동포사회 현안을 파악했다. 또, 20일에는 터키 이스탄불 한 글학교를 방문하고, 한인회 및 한글학교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동포사회 현안을 파악했다.

재단 직원 '2013 조사연구 임무부여 활동' 포상

재외동포재단은 직원들의 업무 능력을 향상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2013 조사연구 임무부여 활동'을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지원자를 대상으로 추진해왔다.

이 사업은 재외동포사회에 대한 이해 제고와 인적 역량 강화 및 정부 정책과 재단 사업에 적용 가능한 방향으로 주제로 삼아서 일과 시간 이외에도 자료를 찾고 인터뷰를 하는 등 조사연구에 심혈을 기울였다.

지역 전문성 3개 분야에 7명이 지원했고, 재외동포의 국내활동 지원에 1명을 포함해 8명이 임무부여에 참여했다. 월 1회 보고서와 최종보고서를 바탕으로 재단은 2월 24일 임무부여 활동 최우수상에 최선호 한상사업부 대리를 뽑았다. 수상자에게는 재단 이사장상과



재외동포재단은 직원의 업무 능력 향상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2013년 조사연구 임무 부여 활동'을 실시해 우수 보고서 제출자에게 2월 24일 포상을 했다.

상금이 주어졌다.

최 대리는 '대만의 화교정책 연구'를 주제로 삼아서 정책 환경 요인의 상호분석을 통해 화교정책을 일목요연하게 분석해 주목을 받았다. 우수상에는 김나영 조사연구부 사원이 뽑혔고, 장려상은 박종환 홍보문화부 부장, 오은아 교육지원부 대리, 김소영 홍보문화부 사원에게 돌아갔다.

동포재단, 모국 수학생 71명에게 장학증서 수여

재외동포재단(이사장 조규형)은 2월 28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올해 재단의 초청으로 한국에서 수학하게 된 재외동포 학생들에게 장학증서를 전달했다. 재단에 따르면 이날 장학증서를 받는 학생은 학사과정 14개국 31명, 석·박사과정 8개국 40명으로 총 18개국 71명이다.

이들은 지난해 5월 재외동포재단 초청 장학생으로 선발돼 2013학년도 2학기 또는 2014학년도 1학기에 국내 대학 및 대학원에 입학했다. 이들에게는 생활비 월 90만 원을 비롯해 보험료, 왕복 항공료, 어학연수비 등이 지원된다.

장학생을 대표해 소감을 발표한 조선족 유학생으로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석사과정에 입학한 임광은 "일제시대에 강제 징집을 피해 중국으로 이주한 할아버지 밑에서 한민족의 자긍심과 모국에 대한 향수를 보고 자랐다"며 "2011년 재단 초청 청소년대학생 모국연수에 참가 후 모국유학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임 씨는 "서울대 대학원 입학허가를 받았지만 학비 마련이 안 돼 고민하고 있었는데 재단 장학생으로 선발돼 공부를 이어갈 수 있게 돼 감사하다"며 "기회를



재외동포재단은 28일 재외동포 초청장학생으로 학사과정 14개국 31명, 석·박사과정 8개국 40명으로 총 18개국 71명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잘 살려 반드시 목표를 이루겠다"고 다짐했다.

벨라루스에서 유학 와 한국의대에 입학한 고려인 3세 김유리 씨는 "11강국인 한국에서 컴퓨터 언어학을 전공해서 돌아가서 온오프라인 한국어 학원을 차리는 게 꿈"이라며 "모국에서의 유학기회를 준 동포재단에 감사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앞으로 양국 간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재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재외동포재단은 교육사업의 하나로 국내 대학 학사과정 수학을 희망하는 우수동포 학생을 비롯한 석·박사 과정까지 선발하여 수학기간 등록금 면제 및 생활비를 지원하는 '재외동포 초청 장학생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재단은 1997년부터 석·박사과정 초청 장학생사업을 시행해 왔으며 학사과정 지원은 지난해부터 해오고 있으며 2011년부터는 학사 과정도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710명의 학생이 졸업했거나 수학과 있다.

우수한 동포 학생을 선발해 모국 유학을 지원함으로써 민족정체성과 세계화된 지식과 사고를 하는 인적 자산으로 키우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장학생사업은 중국, CIS 지역 등 낙후된 지역의 우수 동포 학생들의 고등교육 지원을 통해 동포사회 역량을 키우고 고급 인적자원으로 활용하는 밑거름이 되고 있다.

조 이사장은 "재외동포재단 장학생들이 학업 후에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 거주국 내에서 재외동포사회의 발전을 견인하는 리더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기대를 밝혔다. 부 대리, 김소영 홍보문화부 사원에게 돌아갔다. 

쑥지적도(地籍圖)

백복현 | 캐나다 | 2013 재외동포문학상 시부분 기자

손안에 연둣빛 지도 있네
마틴 글로브와 에글링턴 남쪽 시영 텃밭
밭두렁 위 쑥처럼 뻗어나간 손금들

할아버지 등짝 같이 둥근 손 두덩 아래
두런두런 숨은 길들은 쑥 풀로 무성하다
새참 그릇 부딪는 소리가 이어 나르는
어머니의 고개 넘어
흘러내리는 파리 단단히 틀고
살점 속 파고드는 머리카락
그 길 끝에서 억척 한국 아줌마들
한 뼘의 땅따먹기 놀이로 시영 텃밭은 울긋불긋하다
지적도(地籍圖)의 손가락 끝까지 걸어본다
비물은 삽자루 끼고 내 할아버지도 그 길을 걸었다
삽 한 자루로 목숨 줄을 트면서 부지한 생
모자리는 새벽잠처럼 물꼬는 자다 말다 흘러내렸고
베 잠방이 속 거머리도 피를 흘리며 함께 살았다
비뚤어지고 두리몽살하고 간혹 희미한 목숨으로 앉아있는
가나뭇골, 우뚝배미 도깨비불 검게 탄 둔덕에서 뻗어나온
이름처럼 참하고 진실한 참쑥이
토론토 밭두렁을 차지하고 나지막이 돌아있다

삼성 스마트폰 갤럭시
전자파 그물로 쑥쑥 뻗어가는 하늘 아래
고향 들녘의 뺨쑥은 먼 지역의 둔덕 위에
속보드라운 지적도(地籍圖) 한 장 펼쳐 놓는다

바른 말 고운 말

괴발개발

흔히 제멋대로 모양 없이 써 놓은 글씨를 가리켜서 '글씨가 개발새발이다' 또는 '개발쇠발 썼다'고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틀린 표현을 쓰는 이유는 글씨를 쓴 모양이 도저히 사람이 썼다고 할 수 없을 만큼 엉망이어서, 마치 '개나 새'가 썼거나, 아니면 '개나 소'가 쓴 것 같다고 해서 만들어진 말로 잘못 생각해서 그렇게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개발새발'이나 '개발쇠발'은 모두 비표준어이고 원래 말은 '괴발개발'입니다.

“글씨가 이게 뭐니? 이렇게 괴발개발로 써 놓으면 어떻게 읽어?”

올바르게 표현한 위의 예문에서 말하는 '괴발'은 고양이 발이라는 뜻으로 '괴'는 옛날에 고양이 발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조리 없이 아무렇게나 지껄이는 말을 가리켜서 '개소리 쇠소리'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도 역시 '개소리괴소리'가 맞는 표현입니다.

지양/지향

흔히 '지역주의를 지양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말은 곧 지역주의를 없애야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데, '지양(止揚)'이란 말은 '원전 부정'이나 '부정 그 자체'를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변증법에서 쓰이는 중요한 개념으로 원래 '위로 올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양'이란 말은 대립과 모순을 다시 한층 높은 명제로 조화시키고 통일해 나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어떤 것을 그 자체로서는 부정하면서도 한층 더 높은 단계에서 그것을 긍정하면서 실려 나가는 일을 말합니다.

그런데 '지양'이라는 말과 발음이 비슷해서 종종 혼동해서 쓰이는 말이 바로 '지향(指向)'이라는 말입니다. '지향' 역시 철학 용어로, 원래는 목적이나 목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것은 일정한 목표를 둔 방향으로 의지가 향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지양'과는 전혀 다른 말입니다.

▶ 낱말 맞추기 | 퀴즈를 풀어 정확한 표현을 익혀요.

▶ 3월호 문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 2월호 정답

	결		도	서	관		국	민
영	혼			유		세	수	
화			호	기	심			
관	광		미		장	마	철	
		관				구		
아	나	운	서			간	장	독
시			울	릉	도			불
아	리	랑				청	국	장
	라		원	승	이			군

오른쪽 방향 열쇠

1. 일정한 보수를 받고 남의 집에 가서 학문이나 기예 등을 가르치는 사람
3. 배추를 통째로 소금에 절여 씻은 다음 맵지 않은 소를 잎 사이에 넣어 소금물을 부어 익힌 김치
5. 사람의 마음을 호리는 이상한 술법. 사람의 눈을 속여 이상한 일을 해 보이는 재주
7. 진공 유리관 안쪽에 형광 물질을 칠하여 수은의 방전으로 생긴 자외선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광선으로 바꾼 조명 장치
9. 더럽고 지저분한 태도나 짓거리. '○○'를 부리다
10. 독성을 가진 약제. 극약보다 독성이 한층 강해 사람이나 동물이 극히 적은 양을 마시거나 먹거나 피부로 주입하더라도 생명을 잃을 수 있다.
12. 내장의 일부로, 소장 끝에서 항문에 이르는 소화기관을 말하며 큰창자라고도 불리죠.
13. 한 집안의 맏손자를 부르는 말
14. 나는 아버지의 할아버지를 '○○' 할아버지라고 부르죠.
15. 서로 간에 인사(人事)나 친선(親善) 등의 표시로 서로 손을 내어 마주 잡고 흔드는 것
17. 더 좋거나 높은 직위로 옮겨감
19. 남대문은 한국의 '○○' 제1호다. 보물 제1호는 동대문
20. 몸의 생식 기능이 거의 완성되며, 이성(興性)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젊은 시절
22. 돼지의 발을 요리한 음식
24. 수분을 제거하는 일. 세탁을 하고 '○○'를 한 다음 말려야 한다.
25. 사람이나 동물 등의 생물이 자라남. 아이들의 '○○'을 지켜보다.

아래쪽 방향 열쇠

1. 이마에서 정수리까지의 머리카락을 양쪽으로 갈랐을 때 생기는 금
2. 네 개의 직선으로 둘러싸인 평면 도형. 네모꼴
3. 백열 가스등이나 백열전기등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
4. 대구(大口) 파(科)에 딸린 바다 생선. 이 생선을 얼리면 동태, 말리면 북어라고 하죠.
6. 술을 담그거나 담아 두는 독
8. 철이나 구리, 금 등 광석을 캐내는 곳
9. 원시 사회의 부족이나 부락의 우두머리
11. 약을 파는 사람
12. 발해를 세운 사람
15. 음악의 곡조를 일정한 부호를 써서 나타낸 것. '○○'를 보면서 연주해라.
16. 만물이 푸른 봄이라는 뜻으로 '스무 살 안팎의 젊은 나이'를 비유해 이르는 말
18. 예전 중국에서 여자의 발을 작게 만들기 위해 어릴 때부터 천으로 발을 옥죄어 자라지 못하게 하던 풍속, 또는 그렇게 만든 발
19. 국화 모양의 틀에 반죽을 넣어 구운 빵
20. 사형(死刑) 선고를 받은 죄수
21. 밤하늘에 반짝이는 수많은 별이라는 뜻. '위세 있거나 훌륭한 사람들, 또는 그들이 많이 모인 모양'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
23. 발에서 나는 고약한 냄새. 발을 안 씻으면 이 냄새가 많이 나죠.

아지랑이 아물대는 섬진강의 봄 흥에 겨운 강도 느리게 흐르네



전라북도 임실군에서 시작한 섬진강은 전라남도 곡성과 구례, 경상남도 하동을 거쳐 바다로 흘러 들어간다. 밤사이 피어나는 꽃처럼, 섬진강에도 어느새 봄이 왔다. 곡성은 섬진강 봄놀이의 출발점으로 제격이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산촌으로 서울보다는 겨울이 짧고 온난하기 때문이다. 임실과 진안에서 솟아나 굽이치며 흐르던 섬진강은 남원을 관통하는 요천과 합쳐져 어엿한 ‘강(江)’의 면모를 띤다. 곡성은 구례, 하동으로 이어지는 섬진강의 중간 지점이다.

고속철도가 개통되면서 쓸모가 없어진 예전의 곡성역은 ‘섬진강 기차마을’로 변신했다. 페달을 밟아 전진하는 레일바이크나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증기기관차를 타고 느리게 달리며 봄의 풍광을 만끽할 수 있다.

섬진강 하류인 구례, 하동에 들어서면 시간도 강물처럼 느리게 흐르는 듯하다. 구례는 곡성보다 산이 높고, 골이 깊다. 하늘 아래 첩첩한 봉우리가 끝없이 이어지고, 강물은 대지에 굽직한 획을 긋는다. 험준한 지리산과 백운산에 포위된 평지 사이로 흐르는 섬진강은 구례에서 더욱 폭이 넓어지고 느려진다.

조선시대의 지리서인 ‘택리지(擇里志)’에는 ‘구례 남쪽의 구만촌(九灣村)은 거룻배를 이용해 생선과 소금 등을 얻을 수 있어서 가장 살 만한 곳’이라고 기록돼 있다. ‘구만촌’은 구례 시가지에서 4km 남짓 되는 오늘날의 구례구(求禮口)로 짐작되

는 마을이다.

하동은 남해와 섬진강을 모두 품고 있는 곳이다. 곡성과 구례보다 날씨가 더 온화하고, 섬진강의 물결도 잔잔하다. 바다가 물고 온 봄바람은 살랑거리며 만물에 활기를 불어넣는다. 모래가 많다는 뜻의 ‘다사(多沙)’. 하동은 삼국시대 이전부터 ‘다사촌’이라고 불렸다. 통일신라시대에 ‘하동’으로 개칭되기 전까지, 지명에는 ‘다사’라는 말이 빠지지 않았다. 재미있는 사실은 섬진강의 옛 이름 또한 모래가람, 다사강(多沙江), 사천(沙川)이었다는 것이다. 그만큼 섬진강의 하동 유역은 고운 모래로 유명했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하동송림은 반짝이는 강물을 배경으로 삼림욕을 하기에 좋은 곳이다. 수령 200~300년의 낙락장송이 하늘을 향해 뻗어 있다. 땅에는 솔가지와 솔방울이 널려 있고, 햇빛이 통과되지 못할 정도로 잎이 무성하다. 솔숲의 싱그러움과 맑은 공기는 피로와 스트레스에 찌든 심신을 정화시킨다.

하동의 섬진강에는 ‘당신은 지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을 가고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걸려 있다. 벚꽃으로 이름난





1. 구례에서 본 섬진강 2. 섬진강 기차마을에서는 고풍스러운 역사에서 증기기관차에 탑승할 수 있다. 3. 하동에서 본 섬진강변 4. 하동 금오산에 서면 강해(江海)와 산수(山水)가 빛나는 풍광이 아름답게 펼쳐진다. 5. 하동에는 차나무가 많아 꽃이 없어도 황량하지 않다. 6. 섬진강변 매화마을에서 향이리에 담긴 매실이 숙성되고 있다. 7. 하동 화개장터에서 쟁계사로 이어지는 십리 벚꽃 길은 전국 최고의 벚꽃 명소이다.

화개면부터 광양제철소 건너편의 금성면까지 도로가 이어져 있다. 차도는 물론 자전거와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목재 데크도 곳곳에 정비돼 있다. 특히 재첩마을 인근에서는 갈대숲 사이로 난 산책로를 걸을 수 있다. 바삭 마른 갈대는 강바람이 불 때마다 몸을 흔들며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낸다.

매화, 벚꽃, 배꽃 어우러진 꽃동산

3월부터 섬진강 하류에는 꽃이 지천이다. 강을 사이에 두고 매화, 벚꽃, 배꽃이 흐드러지게 핀다.

‘슬로시티’로 지정된 하동군 악양면은 섬진강과 지리산 사이의 드넓은 평야 지대로 풍요롭고 정겨운 곳이다. 악양은 박경리의 대하소설 ‘토지(土地)’의 무대이기도 하다. 만석지기 최치수와 그의 무남독녀 서희가 머물렀던 ‘최참판댁’은 2001년 준공됐지만, 오래전부터 자리를 지켜왔던 것처럼 여겨진다. 소설의 내용을 토대로 안채와 사랑채, 행랑채, 별당, 사당이 이어졌다. 솟을대문 너머로 보이는 경치가 무척 수려하다. 이곳에는 최참판댁 외에도 박경리의 작품 세계를 엿볼 수 있는 평사리 문학관과 장터, 초가집이 조성돼 있다.

악양과 북쪽의 화개에서는 푸른 차(茶) 덕분에 입춘이 지나면 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다. 화개는 우리나라에서 차를 처음 재배한 지역으로 비탈을 따라 차나무가 도열해 있다.

섬진강 주위에 솟은 산에서는 봄별을 자랑분 삼아 나물이 우후죽순 뻗어 나온다. 자연에서 자란 나물은 맛과 향이 더욱 진하다. 노지에서 채취하는 대표적인 봄나물은 냉이와 달래이다. 구수한 된장찌개에 넣어도, 매콤하게 무쳐서 먹어도 특유의 씹새래함과 알싸함이 가시지 않는다.

참나물과 취나물은 아삭아삭 씹히는 맛으로 생기를 전하고, 봄동은 제법 달콤해서 구미를 당긴다. 흔한 나물인 쑥과 썸바귀도 봄의 진령사 역할을 한다. 이처럼 다채로운 나물은 시골 오일장에서 만날 수 있다. 섬진강변에는 평판이 팬찮은 장터가 많은데, 그중 구례오일장이 가장 북적거린다. 청정한 지리산에서 따온 각종 나물과 약재를 직접 살펴보고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시와는 다른 넉넉한 인심과 흥겨운 분위기도 경험할 수 있다. 오일장은 구례 이외에 곡성과 하동에서도 열린다. 오일장이 서지 않는 날에는 언제나 길손을 맞이하는 하동 화개장터로 향하면 된다. 

2014 재외동포 청소년 초청연수 모집

재단은 향후 재외동포 사회 미래주역으로 성장할 재외동포 청소년·대학생을 대상으로 '재외동포 청소년 초청연수' 사업을 매년 개최해 왔습니다.

세계 각국 재외동포 청소년·대학생이 한자리 모여 소통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상호간 유대감을 형성하고, 모국의 사회·문화·역사를 몸으로 체험함으로써 한민족으로서의 자긍심과 리더십 함양의 계기를 제공하는 재외동포재단 주최 '2014 재외동포 청소년 초청연수'에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



1. 연수기간

- 중·고등학생 : 7.15(화)~7.22(화) <7박8일>
- 예비대학생·대학생 : 7.29(화)~8.5(화) <7박8일>

2. 장소 : 서울, 지방

3. 연수대상(700명) : 전 세계 재외동포 청소년(450명) 및 대학생(250명)

- 만13세~23세(2014.7.1 기준)
- 단, 러시아·CIS지역은 만15세~23세
- 중고등학생(재학생), 대학생(재학생, 입학예정자 포함)

4. 지원자격

- 거주국적자, 영주권자, 해외입양인, 결혼이민자 자녀 등의 자격으로 5년 이상 합법적으로 해외 체류 중인 재외동포, 한-베트남 혼혈, 한-필리핀 혼혈 등 포함
- 재외동포 사회 기여도 및 봉사 실적이 우수한 자
- 합숙 연수(강의, 여행 등)에 지장이 없는 심신이 건강한 자
- 해외 출국에 관한 주재국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자로, 미성년자의 경우 학부모의 동의를 받은 자 (지원서에 추천자 동의서 제출)

5. 신청 및 접수

가. 신청기간 : 2.24~4.4 / 거주국 공관별 마감일자 반드시 확인
나. 제출자료

- 참가신청서 1부(소정양식, www.korean.net 공지사항 내 동 연수광고에서 참가신청서 작성, 출력 → 공관 제출)
- 필수 : 자기소개서(한글·영어 중 택일), 여권사본 1부, 재학증명서 또는 입학허가서
- 선택 : 각종분야 특기자, 수상자 입증서류(사본), 추천서(학교장, 카운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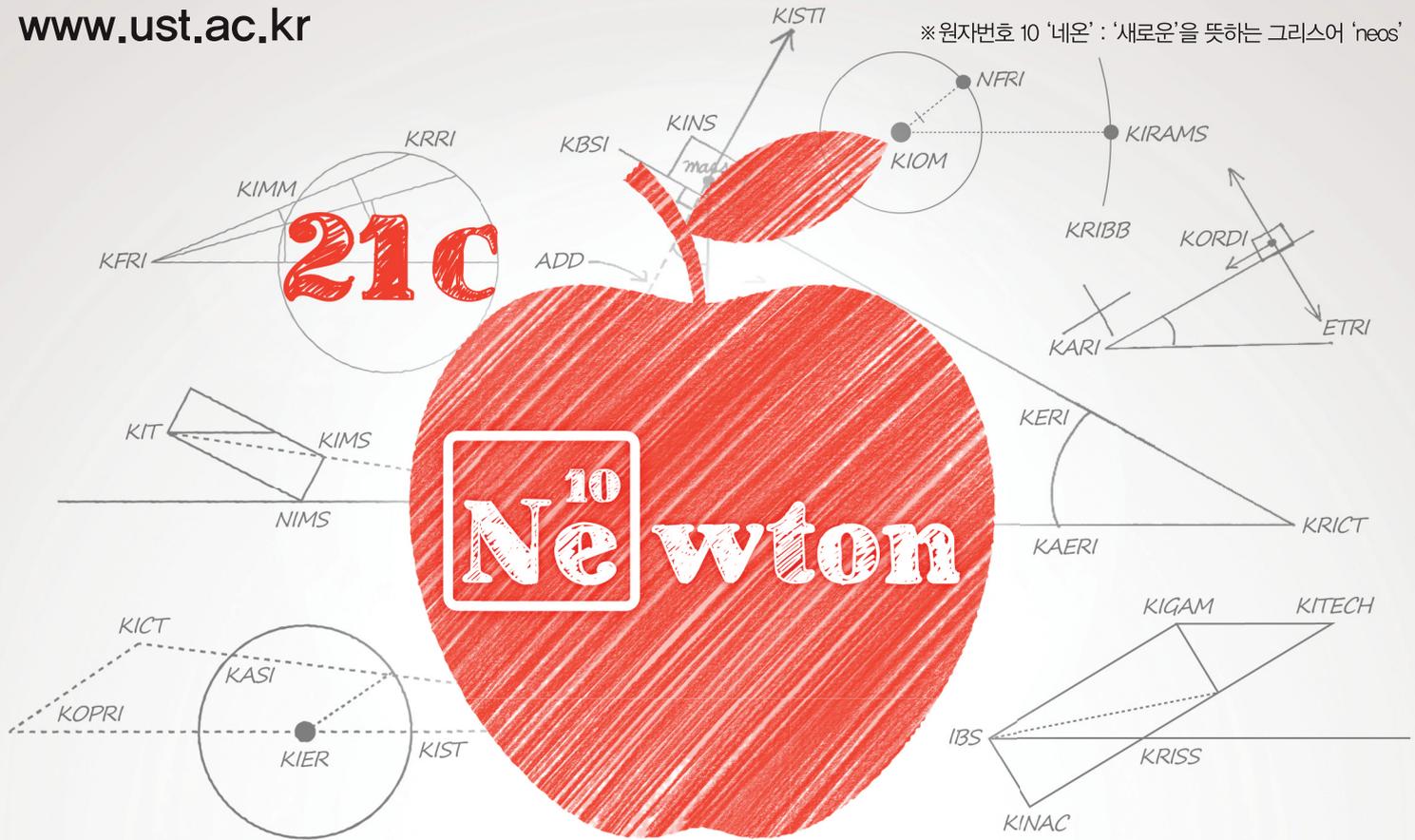
6. 문의 : 재외동포재단 차세대사업부_김주동 대리

- 전화 : 82-2-3415-0175, 팩스 : 82-2-3415-0118
- email : gkyn@okf.or.kr, 관련 웹사이트 : www.korean.net

▶ 동포사회 생생한 소식을 기다립니다

한인 사회의 다양한 소식(한인회, 상공회, 한글학교 행사 등)과 이민의 애환이나 널리 알고픈 미담 등을 보내주시면 게재해서 고국과 전 세계 한인사회에 전하겠습니다. 자랑할 만한 소식, 미담, 성공적인 행사 등 이모저모를 전해주세요.

▶ 원고 보낼 곳 : wakar@yna.co.kr
shaorong@okf.or.kr
(원고 A4 한 장 이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멀리 볼 수 있었던 것은,
내가 거인들의 어깨 위에 올라서 있었기 때문이다.”
- 아이작 뉴턴(만유인력의 법칙) -

뉴턴은 살아있다!

끊임없는 탐구로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USTian**

국가 과학기술 발전을 이끌어 온 40여년 역사의 국가연구기관 캠퍼스,
UST의 어깨 위에서 더 먼 미래를 바라볼 21C의 뉴턴을 찾습니다.

**과학으로 미래를 창조하는 당신,
당신의 꿈이 UST의 미래입니다.**

UST 2014 후기 신입생 모집

- 모집공고 : 2014. 3. 3 (월)
- 원서접수 : 2014. 3. 19 (수) ~ 3. 28 (금) / 10일간
※특별전형은 2014. 3. 12 (수) ~ 3. 18 (화) 까지
- ① 재학생 전원 국내 최고 수준의 연수장려금 지원
(박사과정 최소 160만원 이상, 석사과정 최소 120만원 이상 매달 지급)
- ② 30개 정부출연연구기관 캠퍼스에서 고급 석·박사 R&D 교육
- ③ 국내 최고 수준의 연구원 교수진, 최첨단 연구시설 및 장비

2014 UST 입시설명회

지역	일시	장소
대구	2014. 3. 14(금) 14:00	경북대 북문 Angel in us Coffee 2층
광주	2014. 3. 17(월) 14:00	전남대 후문 Caffebene 3층
서울	2014. 3. 18(화) 18:30	코엑스 컨퍼런스룸(남) 301호
대전	2014. 3. 19(수) 18:30	UST 사이언스홀
부산	2014. 3. 20(목) 14:00	부산대 정문 J SQUARE 제이제이홀
서울	2014. 3. 21(금) 14:00	이대역 로하스스플렉스

※ 문의 : UST 홍보팀 (042-865-2372, kjs84@ust.ac.kr)

한국의 국가연구소대학